

# STARCRRAFT®

LEGACY OF THE VOID™



**BILZARD**  
ENTERTAINMENT

# 승천

글 로버트 브룩스

## 1부

알라라크는 검은 절벽 사이의 그늘진 길에서 멈추어 섰다. 살갓이 따끔따끔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낮인데도 공기 중에 테라진이 감돌고 있었다.

저기다. 서쪽 벼랑 위. 벼랑을 내리닫는 갈쭉갈쭉한 균열에서 테라진의 뿌연 보랏빛 띠가 굵실굵실 피어올랐다. 진동으로 지하의 가스 공동에 균열이 생긴 모양이다. 작은 공동인 듯하다. 이 선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알라라크는 테라진 연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양팔을 들어올려, 창조자의 숨결에 몸을 맡겼다.

그것은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의 핏줄을 흘렀다.

그의 정신을 확장했다.

그것은 그를 아몬, 어둠의 신에게 가까이 데려갔다.

알라라크는 아몬의 뜻, 아몬의 냉혹한 목적, 아몬의 어두운 심장이 우주의 연약한 껍데기 아래에서 약동하는 것을 느꼈다. 공허 속에 얽히고설켜 불끈거리는 핏줄이 지금도 기대로 고동치고 있었다. 타락한 순환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 알라라크와 선택받은 프로토스 일족 '버려진 자', 즉 탈다림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다.

승천이 임박했다고, 아몬은 약속했다.

하지만 소용돌이치는 연무는 금세 산들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축복의 기운은 잠깐 더 머무르고 사라졌다.

이제 테라진은 더 피어오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대기를 가득 채우겠지. 매일 밤 일어나는 일이다. 왜인가? 아몬의 뜻이었다. 슬레인의 모든 탈다림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태양이 떠올라 그분의 선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의 영광에 둘러싸인다. 매일 밤, 탈다림은 모두 그분의 어두운 눈길 아래 평등했다.

그러나 햇빛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햇빛 속에서는 모두 지위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 역시 아몬의 뜻이었다.

무거운 장화가 등 뒤에서 부서진 돌멩이를 밟았다. “알라라크 님.” 그의 부하 지나라가 조심스레 다가온 것이었다. “주인님을 찾으십니다.”

지나라는 다섯 번째 승천자였다. 알라라크는 네 번째로, 승천의 사슬에서 한 고리 높았다. 지나라는 언젠가 그를 죽이려 할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알라라크는 생각했다. 그는 굳이 돌아보지 않았다. “천천히 가겠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이 장소에 테라진 공동이 더 없는지 조사하고 싶었다. *낮에 여기서 테라진이 더 피어오른다면...*

“안 됩니다.” 지나라가 대답했다. “누로카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인님과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잘 알겠다.” 네 번째 승천자인 알라라크는 첫 번째 승천자 누로카를 거역할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아몬을 거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유도 말씀하시더냐?” “군주 말라쉬에게 라크쉬르를 청하셨습니다.” 지나라가 말했다. “둘 중 하나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침묵이 협곡에 내려앉았다. 알라라크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한순간 생각이 모두 그대로 얼어붙은 것만 같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지나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나라는 교활해도 무모하지는 않다. 이 일에 대해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알라라크는 그녀의 내장을 발라내 그 시체를 굶주린 조안시스크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 둘 것이다. 지나라는 알라라크가 여러 부하를 그렇게 처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진실일 것이다. “흥미롭군.” 알라라크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나머지 생각은 지나라에게서 숨기고 있었다. 지나라가 자기 생각을 그에게서 숨기는 것처럼.

“알고 계셨습니까?”

마침내 알라라크는 돌아서서 지나라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 물론 거짓말이었다.

*라크쉬르*. 몇 달 동안 고위 탈다림 사이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아몬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 계획이 결실을 맺는다면 살아 있는 탈다림은 모두 아몬의 새로운 질서 아래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었다. 그런데 군주와 목숨을 걸고 싸운다? 지금? 그건 미친 짓이었다. *대체 왜 누로카는...?*

지나라가 그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알라라크의 다음 말이 지나라가 의식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그는 지나라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내일 싸울 것이냐?”

“글쎄요.” 지나라가 대답했다.

“제법 재미있을 것이다. 군주 말라쉬는 도전자에게 죽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거든.” 알라라크가 말했다. *이 일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승천자들이 전투에 너무 많이 참가한다면, 탈다림 지도자가 너무 많이 죽는다면 그 혼란으로 아몬의 계획이 몇 달, 아니 몇십 년 늦어질 수도 있다. 알라라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었다. 지나라가 빠진다면 그 아래 신분은 아무도 감히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라크쉬르라면 더욱더. 그는 말의 날을 세웠다. “즐겁게 구경해라. 나도 너처럼 유능한 자를 죽이고 싶진 않으니까.”

지나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검고 깔쭉깔쭉한 갑옷 아래에서 어깨가 살짝 꿈틀하며 감정을 살짝 보였을 뿐이었다. “이해합니다.” 지나라는 딱 잘라 말했다. 정말 이해한 게 분명했다. 지나라는 내일 싸우지 않을 것이었다. “누로카 님께서 거처로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알겠다.” 알라라크는 매서운 손짓으로 지나라를 물리치며 대답했다.

지나라는 두말없이 어깨 너머로 그를 힐끗거리며 멀어졌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바람직하다. 알라라크는 자기가 전투 참가를 선언했다고 남들이 믿기를 바랐다. 하지만 누구 편인지는 알지 못하기 바랐다. 모두 혼란에 빠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면 자기 내면의 혼란을 가릴 수 있을 테니까.

알라라크는 올 때 따라왔던 좁은 길을 따라 협곡을 떠났다. 탈다림 전초 기지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다.

의문이 무겁게 마음을 내리눌렀다. 누가 싸움에 참가할 것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

그리고 알라라크는 몇이나 죽일 수 있을 것인가?

## 2부

아몬의 뜻은 단순했다.

*올라가라. 더 높이. 더욱 높이.*

*그러지 않으면 끝없이 떨어지리라.*

알라라크는 늘 그 명료성이 좋았다. 아몬에게서 성스러운 승천의 사슬이 내려오고, 탈다림 하나하나가 하나의 고리다. 자기 위의 고리에게는 복종하고, 아래의 고리는 부린다.

단순하다.

더 높이, 더욱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위의 고리에게 도전한다. 이것이 라크쉬르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사슬의 약한 고리는 제거되며, 탈다림 전체가 더욱 강해진다. 단순하다.

물론 절대 단순하지는 않았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단순할 수가 없다. 알라라크는 잘 알았다.

라크쉬르에서는 남들이 자기 대신 싸울 수 있었다. 수는 상관없었다. 탈다림은 신분과 수를 막론하고 어느 편에서든 싸울 수 있었다. 라크쉬르 의식에서는 단둘이 일대일로 결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양편이 각각 천 명인 경우도 있었다. 대대적인 전투에서 사망자를 파악하고 나면 사슬에 군데군데 간극이 생겼다. 한 번에 신분이 다섯 고리, 열 고리, 백 고리씩 상승하기도 했다. 알라라크의 신분이 그토록 빠르게 상승한 것도 그 덕이었다. 아몬이 선택한 자들조차 허영과 교만에 쉬이 물들곤 했다. 알라라크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승천자 여럿을 적당히 부추겨서, 자신만만하게 라크쉬르를 청하도록 했다. 그들이 압도적인 머릿수 앞에 패배하도록 알라라크가 미리 손을 썼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도전은 대부분 장기전이였다. 승산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했다. 보통 몇 달이고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치 공작을 통해 동맹을 최대한 끌어모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시간이 없었다.

알라라크는 오한을 느꼈다. 그것이 누로카의 공공이인가? 누로카는 명민하고 전략적이었다. 바로 한 달 전에 그는 근처 행성계의 테란 자치령 전초기지를 무너뜨렸다. 방어의 허점을 너무나 빠르게 파고들었기에 인간들은 조난 신고를 채 하기도 전에 탈다림의 붉은 칼날에 목을 내주었다.

이번에도 같은 전술이었다. 적의 맹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목표물은 나다.* 알라라크는 깨달았다. 그 바로 위의 세 번째 승천자 제니쉬는 짐승이었다. 책략에 대한 감이 없었다. 그 위는 두 번째 승천자 구라즈였다. 구라즈는 무서우리만치 교활했지만, 동맹을 끌어모을 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 세력의 정신에 독을 주입하여, 그들이 속으로부터 썩어 헛되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슬의 꼭대기인 이곳에서는 타락시킬 세력이 거의 없었고, 개개인의 야망이 있을 뿐이었다.

승천자 중에 동맹을 결집하고 조종하기로 알려진 자는 알라라크 하나뿐이었다. 그 기술을 지닌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알라라크가 그러도록 손을 썼다.

협곡을 따라가던 길이 끝나고, 알라라크의 장화 아래에서 하얀 자갈이 몇 세기 동안 검댕과 때로 검어진 돌덩이에 자리를 내주었다. 슬레인의 마지막 밀림이 밤의 테라진 안개에 질식한 후로 적어도 그 정도 세월이 흘렀다. (알라라크의 생각으로는 창조의 숨결에 축복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사소한 대가였다.) 그의 앞에 탈다림의 건물들이 대담하고 강인하게 솟아 있었다. 기사단의 허영뿐인 기념비와는 달리, 전쟁을 불사한다는 탈다림의 각오를 보여 주는 건물이었다. *모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알라라크는 생각했다. 탈다림은 고통의 가치를 알았다. 갈등은 삶의 본질이었다. 번뜩이는 도시와 허황한 통합으로 그것을 없애려 하는 건 무지한 자뿐이다.

몇 분 후 알라라크는 전초기지의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이른 오후였다. 수많은 하층 프로토스가 건물 사이를 총총거리며 지나갔고, 그 지역이 그들의 들뜬 생각으로 웅웅거렸다. 이들에게 이 라크쉬르는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라크쉬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이야기뿐이리라.

알라라크가 그 사이로 성큼성큼 걸자 그들이 비켜 섰다.

첫 번째 승천자 누로카의 거처는 멀지 않았다. 입구가 거리 쪽으로 나 있어서 남모르게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남들이 알라라크를 보고 입방아를 찧을 게 분명했다. *두 번째 승천자와 세 번째 승천자가 이 회합에 대해 알게 될 것이었다*. 알라라크는 그 점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알라라크가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와 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로카가 태어난 세상의 기후와 비슷했다. 첫 번째 승천자는 이곳의 건조하고 혹독한 날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알라라크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누로카는 방 안에는 없었지만 근처에 있었고, 아무리 라크쉬르 전날이라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복종하고 섬깁니다.” 알라라크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늦었군.” 누로카가 말했다.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소리는 분명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라즈나 제니쉬와 이야기했느냐?”

알라라크는 언뜻 솟구치는 짜증을 억눌렀다. *그러는 그대는?* 그건 알라라크가 알고 싶은 것이었다. 이미 손을 씻을까? 이미 둘 중 하나, 아니면 둘이 누로카의 편에 서겠노라 맹세했을까? 이 답을 알지 못한다면 내일의 *라크쉬르*에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셈이 될 터였다. 하지만 어차피 대답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물어도 소용없었다. “아니요.”라고 알라라크는 대답했다.

누로카가 마침내 방에 들어왔다. 건물의 작은 창으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알라라크가 눈앞의 광경을 분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 승천자는 전통적인 승천자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저 수수한 회색 로브를 걸쳤을 뿐.

신선한 피로 얼룩진 로브를.

알라라크는 벌떡 일어나 칼을 준비했다. *암살자다!* “몇이 공격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라짐이었다. 분명했다. 아니면 군주인가? 도전자들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다.*

“내가 일어나도 좋다고 했던가, 네 번째 승천자여?” 누로카는 불안해하기는커녕 재미있어하는 듯했다.

오랫동안 알라라크의 반짝이는 칼날만이 움직일 뿐이었다. 알라라크는 칼을 거두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 쿵쿵 뛰던 심장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누로카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알라라크가 무릎을 꿇고 있도록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일어나도 좋다.”

알라라크는 속에서 짜증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 감정을 깊이 묻어 둔 채 군소리 없이 일어섰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승천자여?”

“전언을 보내야 했다.” 누로카는 로브의 소맷자락을 걷어 올려 피투성이 살갓을 그대로 내보였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군주와 아몬.”

알라라크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누로카의 상처는 피부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거된 것으로, 똑바르고 평평했다. 절개에는 망설임의 흔적이 없었다. *누로카가 자기 손으로 했던 말인가?* 그렇다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누로카가 것처럼 갑작스레 *라크쉬르*를 칭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누로카가 차갑게 말했다.

알라라크는 자신을 저주했다. *어리석구나! 생각을 숨겨야지!* 적어도 칼라가 없으니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알라라크는 기사단이 그런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누로카의 푸른 피가 주룩 흘러내리더니 돌바닥에 철퍼덕 떨어졌다. “내일 모든 게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에는 어두운 익살이 스며 있었다. “나는 군주 말라쉬가 정체를 드러내기를 바란다. 물론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는 다시 소맷자락을 팔 위로 늘어뜨렸다. “내가 젊고 지위가 낮았을 때, 나는 몸에 아몬의 말씀을 새겼다. 너도 그랬느냐?”

“아닙니다.” 알라라크는 대답했다.

“아몬을 의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알라라크는 거듭 말했다. 하층 숭배자일 때조차도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몬의 가르침에 대한 열성을 보이는 방법은 그 외에도 많았다.

누로카는 손가락을 소매 위로 들어 살갓에 말씀이 새겨져 있던 곳을 어루만졌다. “*나를 섬기고 지배하라. 승천의 날에 타락한 순환은 끝이 나리라. 승천의 날에 너희는 누구보다도 높이 오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모두 기억했다. *올라가라. 더 높이. 더욱 높이...*

누로카의 눈이 알라라크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걸 지웠다고 생각하느냐?”

공기에 이단의 기운이 감돌았다. 알라라크는 자기가 이단이 되도록 몰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승천의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로카가 말했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내일 나는 탈다림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몬을 죽이는 걸 도와주세요.”

### 3부

알라라크는 자제심과 인내심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새 칼을 뽑아 휘두르며 누로카의 목에 달려들고 있다는 데 깜짝 놀랐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머리가 물었다.

*반역자를 죽이는 거지!* 그의 심장이 노래했다.

완벽한 기회였다. 누로카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고, 알라라크가 보기로는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 승천자는 칼을 아래로 휘두르고...

날아서...

골이 울릴 정도로 강하게 방의 동쪽 방에 부딪혔다. 그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두 발로 미끄러지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여리석긴!* 머리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심장이 대답하지 않았다. 누로카는 성스러운 사슬에서 세 고리 높았다. 무시무시한 전사가 아니었다면 그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었다. 게다가 알라라크는 방금 *라크쉬르* 외의 경우에 상급자를 공격했다. 이것은 탈다림으로서 가장 흉악한 범죄로, 사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었다. 공개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긴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알라라크가 신성모독 죄로 첫 번째 승천자의 머리를 베고 싶은 충동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지금도 그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누로카는 차분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필요가 없었다. 방금 알라라크를 맨손으로 방 저편으로 던진 것이었다.

알라라크는 태세를 풀고 칼을 거두었다. “그대는 미쳤습니다.” 알라라크가 말했다.

“아몬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누로카가 물었다.

“그대는 *미쳤습니다.*”

누로카는 그 말을 무시했다. “어떻게 죽일 것인지 말해라.”

“아몬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알라라크가 말했다. *미치광이 이단자* 같으니. 이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시험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로카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다. 그 눈에 광기는 없었다. 아몬에 대한 알라라크의 충성심을 극적인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알라라크는 그 생각에 매달렸다. “은하수의 별을 모조리 파괴하는 게 차라리 쉬울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몬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창조자의 숨결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가 없다면 탈다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로카의 눈길은 차갑고 단호했다. “자유로워지지. 아몬이 없다면 탈다림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이단자들과 함께 죽을 자유를 얻겠지요.” 불신의 벌레가 알라라크의 머릿속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알라라크는 누로카에게서 진심밖에 느낄 수가 없었다. “기사단의 꼭두각시들이 아몬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설마 진정으로...?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그리고 아몬이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몬의 약속입니다.”

누로카의 대답에서 조롱이 뚝뚝 떨어졌다. “*라크쉬르*의 칙령을 기억하느냐? *상급자를 쓰러뜨려라. 아니면 그 발아래 쓰러지리니.*”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건 사실 아몬의 말이 아니다. 말라쉬와 선대 군주들이 왜곡한 것일 뿐.” 누로카의 두 눈이 보라색으로 번뜩였다. 테라진 가스의 색이다. “어젯밤 창조의 숨결이 피어올랐을 때 나는 장막 뒤로 너무 멀리 갔다. 진실을 보았지.”

“어떻게 말입니까?”

“군주 말라쉬는 자기도 아몬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나는 공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아몬의 비밀스러운 생각을 알고 싶었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영예의 모습을 어렵듯하게나마 보고 싶었다.” 누로카의 로브는 마치 분노가 쏟아지듯 흘러나오는 피로 축축해지고 있었다. 흥분으로 심장이 질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냈다. 아몬이 방심한 것이다. 승리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경계를 풀었다.” 누로카는 천천히 알라라크 쪽으로 걸어왔다. “*상급자를 쓰러뜨려라.*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라.”

누로카가 다가오는 동안 알라라크는 제자리를 지켰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몬은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의 심장에서 보았다.” 누로카의 눈이 반짝였다. “아몬이 우리의 결투장을 무엇이라 이름했지? 승천의 투기장이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아몬은 승자를 치하하는 게 아니라 패자를 기린다. 그자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승천자인 것이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어 없애 버리도록 부추긴다. 그게 우리 모두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이지.”

알라라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로카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알라라크는 본심을 숨겨야 했다.

누로카는 그래도 다 감지하는 모양이었다. “날 믿지 않는군.”

알라라크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몬은 미지의 존재다. 그의 생각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진실을 본 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해석할 것은 없었다. 분명했으니까. 아몬의 승천은 곧 우리의 망각이다. 아몬은 젤나가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도 포함하지. 아몬은 우리가 모든 행성, 항성과 함께 먼지가 되어 흩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다. 그리고 멍청이 말라쉬는 그걸 알고 있지.”

누로카는 알라라크에게 바짝 다가왔다. “너는 아직 아몬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보지 못했지. 아직은. 하지만 아몬이 원하는 게 무언지 생각해 보라. 순환의 끝, *생명*의 끝이다. 왜 유독 우리만 그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겠느냐?”

알라라크는 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었다. “제니쉬와 구라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가 누로카의 얼굴을 가로지르더니, 그는 알라라크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와는 달리 상상력이 없어.”

알라라크는 대답에서 노기를 감출 수가 없었다. “저도 아몬을 죽이는 법은 모릅니다.”

누로카는 방 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알라라크를 다시 마주 보았다. 첫 번째 승천자의 짜증스러운 눈빛은 흥미로운 눈빛에 자리를 내주었다. “아직은 모르겠지.”

“결코 모를 겁니다.” 알라라크가 말했다.

“대신 무엇을 원하느냐?” 누로카는 물러나지 않았다. “아몬이 죽어야 네가 산다면 어찌겠느냐?”

알라라크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갈 시간이 이미 지났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로카 님. 다시는 뵙지 못하겠군요. 군주 말라쉬가 그대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죽여 버리겠다.” 누로카는 근육 한 가닥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알라라크는 그래도 멈추었다. 첫 번째 승천자의 말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있었다. “이건 명령이다. 아몬을 어떻게 죽일지 말해라.”

알라라크는 잠시 불복할까 고민했다. 누로카는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위협했다. 폭력 사태가 지금 시작된다면 어쩌면 알라라크는 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앉아도 되겠습니까?” 내일도 죽일 시간은 충분하다. 누로카는 바닥을 향해 손짓을 했고, 알라라크는 그 앞에 가서 앉았다.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몬은 공허의 존재입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로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죽인다. 파괴한다. 추방한다. 단어는 마음대로 선택해라. 탈다림을 아몬의 손아귀에서 영영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는 밝혀 두지.” 그는 알라라크가 채 대답하기 전에 말을 이었다. “내가 네게 말을 하는 것은 네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다.” 누로카의 두 눈이 가늘어지며 번뜩였다. “네가 4년 전에 무엇을 꾸렸는지 알고 있다. 네가 승천자가 되었을 때 말이지.”

알라라크는 조용해졌다. *라크쉬르* 한 번에 사천이 참가했다. 팔백이 죽었다. 그는 지금껏 자기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아주 철저하게. 그는 심지어 의식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알라라크가 알기로는, 그가 거기에 한몫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어젯밤까지는 몰랐다. 아몬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더구나.” 누로카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몬은 재미있어하더군.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조리 죽었다. 함대는 몇 달 동안 혼란 상태였지. 아몬 자신의 계획도 늦어졌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너도 마찬가지지. 그날 사슬을 *날아* 올랐으니. 이것이 네가 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이유다. 탈다림은 성스러운 사슬이 신성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아몬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어떻게 쓰러뜨리겠느냐?”

*쓰러뜨릴 수 없다니까.* 하지만 그 질문은 *실로* 흥미로웠다. 물론 가설일 뿐이지만. “공허로 가야 합니다. 아몬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면 아마 공허에서나 가능하겠지요.” 아몬이 물질을 조작하는 공간이다. 과연 아몬의 축복 없이 살아서 세 발자국이나 옮길 수 있을까. “역시 불가능합니다.”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누로카가 말했다. “네가 첫 번째 승천자가 되면 그때는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뜬금없고 기묘한 대화를 나누면서, 알라라크는 더 놀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 생각이 틀렸다. “예?”

“의식에서 승리하면 나는 군주가 된다. 아몬에게 도전하려면 너처럼 직관이 뛰어난 자가 필요하다. 제니쉬와 구라즈는 적합하지 않지. 그러니까 네가 그 둘을 죽여야 한다. 내일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네가 라크쉬르를 청해라. 내가 도와주마.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알라라크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 둘이 내일 그대의 반대편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도 속수무책입니다.” 변수는 알라라크, 제니쉬, 구라즈 셋뿐이므로 동등한 싸움은 있을 수 없었다. 셋 모두 의식에 참여한다면 하나가 나머지 둘을 상대하게 될 것이므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거라. 방법은 상관없다.” 누로카가 말했다. “둘 중 하나를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거라. 네가 잘하는 일 아니더냐.” 첫 번째 승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띠고 눈을 감았다. 그는 차분한 자세를 취하고 다음 날의 싸움에 대비해 명상을 할 채비를 했다. “만약 네가 싸움에 끼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하는 목숨이지. 내 말 알겠느냐, 네 번째 승천자여?”

“예.”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럼 가거라.”

알라라크는 그 말을 따랐다.

한 시간 후에 해가 지고 테라진이 피어올랐다. 탈다림은 모두 아몬의 영예를 누리며 새벽의 의식을 고대했다. 알라라크는 밤을 표류했다. 생각하며, 계획하며.

결단하며.



## 4부

밤이 지나가고 지평선이 밝아 왔다. 테라진은 사라졌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수천의 탈다림이 승천의 구덩이 둘레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의식의 장은 우주모함 함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광활했다. 양쪽 끝에서는 거대한 구덩이가 심연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패자는 심연 속에서 영원히 안식한다. *라크쉬르*에서 패배한 자는 이 세상의 이글거리는 핵에 도달할 때까지 끝없이 떨어질 것이다.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보이는 여정일 테다.

알라라크는 새벽 직전에 도착했다. 군주 말라쉬가 동쪽 구덩이 근처에서 공중으로 한 걸음 떠올라 힘을 모으고 있었다. 얼굴은 뾰족뾰족한 강철 가면 뒤에 가려 있었고, 붉은 기운이 그 주위에서 불꽃을 튀기고 파문을 일으켰다. 첫 번째 승천자 누로카는 서쪽 구덩이 근처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갑옷을 입지 않고 피투성이 로브만 걸치고 있었다. 관중은 그 모습을 보고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말라쉬까지 한마디 보냈다. “안타깝군. 내가 처음으로 놈의 피를 흘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관중 전체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어쨌든 그 피를 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첫 번째 승천자나 나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군.”

구덩이 사이에는 알라라크보다 지위가 높은 나머지 탈다림 둘, 두 번째 승천자 구라즈와 세 번째 승천자 제니쉬가 서서 알라라크를 뻘히 바라보고 있었다. 누로카가 전날 밤 알라라크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알라라크는 그 눈길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는 승천의 구덩이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관중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승천자 지나라를 발견하고 그 옆에 섰다. 지나라는 놀란 표정이었다. “구경하시려고요?” 지나라의 신랄한 한마디에 알라라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라라크*. 누로카였다. 그는 알라라크를 보지 않고 비밀리에 말을 전했다. 둘이 대화하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무엇 하느냐?*

알라라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네 번째 승천자여. 대답해라. 이것은 명령이었다.*

알라라크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다. 곧 새벽이 밝을 터인데 그는 의식의 장 밖에 서 있었다. 구라즈와 제니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 알라라크는 이 라크쉬르에 참여하지 않을 속셈이다. 기회주의자 알라라크가 남들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길 속셈이다.

누로카의 정신에서 악의가 흘러나왔다. *날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들었겠지. 그는 분노로 부글거리고 있었다.*

알라라크가 마침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시다. 아무것도 배신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구라즈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니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군주와도요.*

*내 동맹이 되겠다고 선언해라, 알라라크. 당장.*

알라라크는 대답으로 바닥에 앉았다.

누로카는 분노를 터뜨렸다. *아몬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냐? 그자는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가 죽는 꼴을 보려고 한다. 너는 그렇게나 어리석-*

*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라라크는 구라즈와 제니쉬에게 눈을 돌렸다. 저 둘은 그대가 나와 이야기했다는 걸 압니다. 그 둘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니 그대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겁니다. 제가 저 둘을 다 쓰러뜨릴 순 없습니다, 첫 번째 승천자여.*

*그래서 나는 동맹이 하나도 없게 되었군.*

그렇까요? 알라라크가 물었다.

구라즈와 제니쉬는 서로를 재고 있었다. 제니쉬의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구라즈의 두 다리는 전투 태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둘은 천천히 거리를 벌렸다.

알라라크는 음침한 만족감을 만끽했다. 그의 생각이 맞았다. 이 둘이 누로카에게 맞서 동맹을 맺기로 한 것은, 군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로카가 너무나 갑자기 도전했기 때문이다. 누로카와 알라라크의 비밀스러운 작당을 상대하려면 한편이 되는 게 상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라라크가 싸움에서 빠졌다. 누로카는 쉽게 이길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쉽게 이기더라도 구라즈와 제니쉬가 얻을 건 거의 없었다. 성스러운 사슬에서 그저 한 고리 올라갈 뿐. 미래의 도전자는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었다. 얼마나 불만스러운 일인가.

암묵적인 계약을 깨뜨린 것은 짐승이자 슬레인의 재앙인 세 번째 승천자 제니쉬였다. “누로카 님의 동맹이 되기를 선언하노라!” 그는 우렁차게 외쳤다.

말라쉬가 씹어 먹듯 말했다. “한심하긴.”

구라즈는 괴로운 죽음을 각오하라는 듯이 제니쉬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알라라크에게 눈을 돌렸다. 알라라크는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했다. 관습에 따르면 새벽이 밝아 라크쉬르가 시작하기 전에 선언을 모두 끝내야 했다. 구라즈는 머뭇거렸다. 이 싸움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었다. 제니쉬와 함께 누로카 편에 서서 말라쉬를 쉽게 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승천자였다. 야망 없이 이 지위에 오르는 자는 없다. 그리고 야망은 언제나 분별보다 앞선다. 알라라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날, 야망이란 위협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제니쉬는 어차피 언젠가는 구라즈를 죽이려 들 터였다.

“나는 말라쉬 님의 동맹이 되기를 선언하노라!” 구라즈가 말했다.

누로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말라쉬가 양팔을 펼치고 말했다. “나의 충직한 종, 구라즈여. 너는 오늘 더욱 높이 오를 것이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고개를 슬쩍 내밀었다. 알라라크는 아직 앉아 있었다.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다.

누로카가 앙심이 어린 한마디를 했다. *이건 우리의 합의와 다르다.*

*저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알라라크가 대답했다. 그리고, 때가 왔다.

*라크쉬르*의 막이 올랐다.

“네 이단 행위는 오늘로 끝이다.” 군주 말라쉬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첫 번째 승천자 누로카는 손바닥을 들어올렸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이오닉 에너지 파동을 쏘아 보내자, 두 갈래가 격돌하며 뻘뻘한 번갯불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몇 세기 동안 무수한 전투를 거치며 검게 그을은 돌과 금속 바닥이 연기를 뿜으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탈다림 구경꾼 대열은 마지못해 열기를 피해 뒤로 물러났다.

알라라크만 피어오르는 연기에도 끔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지나라조차 뒤로 물러났다. 제니쉬와 구라즈는 아직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알라라크가 관습 따위 무시하고 싸움에 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만있었다.

마침내 제니쉬가 눈길을 돌리더니 칼을 뽑았다. 고대인들에 따르면 행성을 두 토막 낼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아몬의 세계에서 오는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칼날이 구라즈의 살에 다가들었다. 구라즈는 한숨에 공격을 피했다.

싸움이 진짜로 시작된 것이다. 도전하는 자와 도전받는 자가 서로에게 순수한 힘을 날 것 그대로 퍼부었다. 구라즈와 제니쉬는 그 옆에서 싸웠다. *라크쉬르*에서 양편의 동맹은 결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나, 사이오닉 능력을 보탤 수는 있었다. 그렇기에 적을 압도하려면 동맹이 더 필요한 것이었다. 각각 동맹이 하나뿐인 지금도 누로카와 말라쉬의 공격은 폭발적이었다. 어느 쪽이든 혼자였다면 것처럼 파괴적인 공격은 불가능했을 것이었다.

제니쉬가 육체적 힘도, 사이오닉 잠재력도 더 강했다. 그만큼은 분명했다. 그의 힘은 누로카의 힘과 합쳐져 군주 말라쉬를 한 발자국씩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제니쉬는 검술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오른쪽 팔꿈치로 구라즈의 관자놀이를 후려치면서, 동시에 왼손의 칼로 그녀의 갑옷을 가르고 그 아래 피부에 생채기를 냈다. 구라즈는 제니쉬가 칼을 찔러 넣기 전에 가까스로 물러났다. 제니쉬가 뒤를 쫓자 구라즈는 그의 머리를 건어챘다.

구라즈는 이미 지고 있었다. 그 또한 분명했다. 그리고 부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니쉬는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한 발을 내딛더니 양손의 칼을 어깨 높이로 내질렀다. 지금 구라즈의 머리를 베어 싸움을 끝낼 속셈이었다.

그 순간, 그는 허리에 빈틈을 보였다.

구라즈는 부상을 당하고도, 밀리면서도 매우 빨랐다. 발을 똑바로 딛고 몸을 앞으로 질렀다. 두 개의 칼이 제니쉬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구라즈가 칼을 비틀자, 번뜩이는 칼끝이 제니쉬의 등으로 튀어나왔다. 제니쉬는 축 처졌고 칼도 사라졌다. 구라즈는 제니쉬의 몸뚱이를 썬 채로 똑바로 들어올려, 마지막 빛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체를 옆으로 던져 버렸다. 천천히, 구라즈는 고통과 피로를 억누르며 격돌하는 에너지 소용돌이로 다가갔다.

끝이다. 탈다림 구경꾼들이 경탄하며 웅성거렸다. 끝났다. 누로카에게는 이제 전사가 없었다. 말라쉬의 힘에 구라즈의 힘이 더해지자 그는 금세 밀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승천자는 한 걸음씩이 아니라 한 길씩 밀렸다.

누로카가 패배했다. “걱정하지 마라. 후회할 시간은 충분히 남겨 줄 테니.” 군주 말라쉬가 말했다.

알라라크가 일어섰다. “날 따르지 마라.” 그는 지나라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지나라의 놀란 눈길을 뒤로하고 의식의 장으로 뛰어 들었다. 군중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다. 알라라크는 칼을 뽑았다. 그의 손목 위로 두 개의 에너지 줄기가 탁탁거리며 솟아올랐다. 놀란 웅성거림이 탈다림 사이에 물결처럼 번졌다.

전투 전에 동맹을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관습은 어디까지나 관습일 뿐이다. 그것은 아몬의 법칙도, 탈다림의 법칙도 아니다. 그래서 알라라크는 그것을 무시했다.

구라즈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허를 찔렸음에도 몸을 돌리고 칼을 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알라라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어깨로 부딪혀 들어가서는 자신의 칼로 구라즈의 칼을 잘라 버렸다. 그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부딪힌 탓에 구라즈는 공중에 뿔뿔이 났다. 동시에 알라라크는 사이오닉 능력을 누로카에게 열었다.

첫 번째 승천자는 환성을 올리고는 알라라크의 힘을 깊숙이 빨아들었다. 누로카는 어느새 밀리지 않았다. 두 힘은 거의 막상막하였다. *구라즈를 빨리 끝내라, 알라라크. 그러면 너의... 창의력은 눈감아 주마.* 누로카가 비밀스럽게 전했다.

구라즈는 분기충천했다. 가까스로 일어서는가 싶더니 금세 칼을 휘두르고 내지르기 시작했다. 알라라크는 공격을 최대한 피했다. 칼이 스치며 여기저기 생채기가 났다. 그는 따갑고 불타는 고통을 무시하고 쇠도하는 공격을 피하는 데 집중했다.

구라즈의 분노는 점점 더해 가는 피로를 거의 만회할 만큼 격렬했다. 거의.

구라즈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다. 기력이 쇠하고 있었다. 알라라크는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공격을 피했다. 빠른 결론을 굳이 앞당길 필요는 없었다.

“비겁한 쓰레기 같으니.” 구라즈가 말했다. 그녀는 끝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구라즈의 팔이 늘어지기 시작하자, 알라라크는 방어를 뚫고 단칼에 그녀의 복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 눈과 칼의 빛이 한시에 사라졌다. 알라라크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구라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도록 두었을 뿐이었다.

이제 동맹이 없는 건 군주 말라쉬였다. 누로카와 알라라크의 힘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누로카는 군주에게 방망이질하듯 사이오닉 에너지를 퍼부어, 탈다림의 지도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너는 알았겠지?” 누로카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몬의 배신을 다 알았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도.”

말라쉬는 대답 없이 누로카를 향해 에너지 장벽을 일으켰다. 그러나 장벽은 미처 형태를 이루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말라쉬는 동쪽 구덩이로 밀리고 있었다.

결투장은 광활했다. 거의 반 시간 후에야 군주는 마침내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알라라크는 내내 누로카, 말라쉬와 보조를 맞추며, 구경꾼들을 주시하며 혹시나 누군가 자신의 선례를 따라 갑작스레 싸움에 뛰어들지는 않는지 살폈다. 특히 지나라를 주시했다. 그녀는 앉아 있었다.

“알라라크, 이 반역자.” 군주 말라쉬가 씹어 먹듯 말했다. “너는 누로카의 공공이를 모른다. 저자는 아몬을 배신할 것이다.” 말라쉬는 동쪽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양 다리를 버티어 섰다. 그 등 뒤로 죽음이 입을 딱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몬이 우릴 먼저 배신했다!” 누로카가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힘을 모으며,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 치하에 우리는 아몬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아몬에게 맞설 것이다. 우리는—”

알라라크는 싸움에 끼어든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결단이었다. 그리고 지금, 또 의도적인 결단을 내렸다.

“말라쉬 님의 동맹이 되기를 선언하노라.” 그는 누로카에게서 힘을 거두었다.

첫 번째 승천자의 마지막 사이오닉 일격이 흐지부지 사라졌다. 알라라크는 차분히 말라쉬에게 정신을 열었고, 군주는 주저 없이 그 힘을 받아들여 폭발적인 파동을 날렸다. 누로카는 여덟 걸음이나 밀려났다.

“뭐라고?!” 누로카가 포효했다. 군주는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전진하고 있었다. “*라크쉬르* 도중에 동맹을 바꿀 순 없어!”

“그렇지요.” 알라라크가 인정했다. ‘일단 동맹을 선언하면 그 관계는 누군가 죽거나 승리할 때까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몬의 법칙이었다. “전 동맹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요.” 역사상 누구도 동맹을 선언하지 않고 *라크쉬르*에 참전한 적은 없었지만, 그건 법칙은 아니었다. 관습일 뿐. 그래서 알라라크는 그 관습을 무시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동맹을 선언했으니...”

“바꿀 수가 없지.” 말라쉬가 음침하게 웃으며 받았다. “이제 끝까지 *나*를 섬겨야만 한다.”

“안 돼.” 누로카가 속삭였다. “네가 우리 모두의 파멸을 불렀다.”

“군주 말라쉬여.” 알라라크가 말했다. “아몬 님의 계획이 결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로카가 모든 걸 망치려 했지요.”

“안 돼!” 누로카는 숫제 비명을 질렀다.

“그랬겠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알라라크.” 군주가 말했다. “이제 즐겨야겠군.”

군주는 마음껏 즐겼다. 말라쉬가 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육신이 갈가리 찢긴 누로카를 들어 올린 건 석양 무렵이었다. 말라쉬는 누로카의 몸뚱이를 구덩이 위로 늘어뜨린 채 최후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자는 안다, 알라라크.” 누로카가 웅얼거렸다. “군주 말라쉬는 아몬의 배신을 알아. 맹세하겠다.”

“마음껏 맹세하십시오.” 알라라크가 말했다. 누로카의 말에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다. 알라라크는 조그마한 의심의 씨앗이 굳건하던 믿음의 토대에 뿌리를 내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자라게 두지는 않으리라*, 알라라크는 생각했다. 아몬은 어둠의 신이다. 그분의 뜻은 불가해하다. 그분의 힘은 장엄하다. 그분의 약속은 진실하다. 또 흔들릴 때를 대비해 스스로의 생각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알라라크의 앞길은 분명했다. 오늘 알라라크는 성스러운 사슬 꼭대기로 오를 것이고, 순환은 끝나고 꼭두각시들은 힘을 잃고 그는 승천하여 아몬의 영예를 누릴 것이다.

지평선에 어둠이 내릴 때 말라쉬는 마침내 누로카의 목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마무리는 중력의 몫이었다. 첫 번째 승천자의 피투성이 로브 조각들이 주인의 뒤를 따라 나풀거리며 떨어졌다.

이렇게 *라크쉬르*는 끝이 났다.

## 5부

“영리하군.” 군주 말라쉬가 말했다. “영리한 증복은 귀찮아서 말이야. 이제 널 죽여 버리고 싶은걸. 아몬 님께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실 테지.”

알라라크는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축전은 없다. 필요가 없을 테니까. 지금쯤 모든 탈다림이 누로카의 도전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들었으리라. 말라쉬가 이겼다. 그의 동맹 알라라크가 균형을 깨고 성스러운 사슬을 세 고리 타고 올랐다.

*공허한 위협*이라고 알라라크는 생각했다. 오늘 승천자가 하나 더 죽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죽었다. 아무리 탈다림이라 해도, 명령을 수행할 노련한 부하가 없으면 군대는 기능할 수가 없다.

말라쉬가 말을 이었다. “대답해라, 첫 번째 승천자여. 언젠가 탈다림을 지배하고자 하느냐? 군주가 되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말라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게 분명했다. “나와 아몬 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 참 안심이 되는군.”

“승천의 날에 저희는 주인을 넘어 위로 오를 것입니다, 군주여.” 알라라크가 대답했다.

“누로카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나?”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라라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말라쉬가 말했다.

“물론이지요.”

군주는 그의 말투가 성에 차지 않았다. “알라라크, 이걸 알아 두거라. 나는 승천의 구덩이에서 네 힘을 온전히 느꼈다. 그래서 네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군주가 와락 손을 뻗어 알라라크의 얼굴을, 눈 바로 아래의 광대뼈를 옥죄었다. 말라쉬는 알라라크를 거칠게 들어 올려, 아까 누로카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구덩이 위로 가져갔다. 알라라크는 저항하지 않았다. 말라쉬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유성우와도 같이 격렬하게 내리꽂혔다. “내게 도전하면 널 짓밟아 줄 테다. 내게 도전하면 너는 누로카처럼 자비롭게 죽여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좋아.” 말라쉬는 손을 놓았고 알라라크의 장화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승천의 날에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네 임무는 내일 시작이다.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야.”

“알겠습니다, 주인님.” 알라라크가 대답했다.

그러자 말라쉬는 사라졌다. 알라라크는 아직도 두개골을 옥죄는 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엔 내가 군주의 힘을 느꼈군. 이제 내 길은 분명하다.* 알라라크는 생각했다.

*섬기고... 준비하며...*

... 적당한 용사들을 찾아야지...